

中, 연이은 AI 혁신 속 개인정보 보호·저작권 위반 등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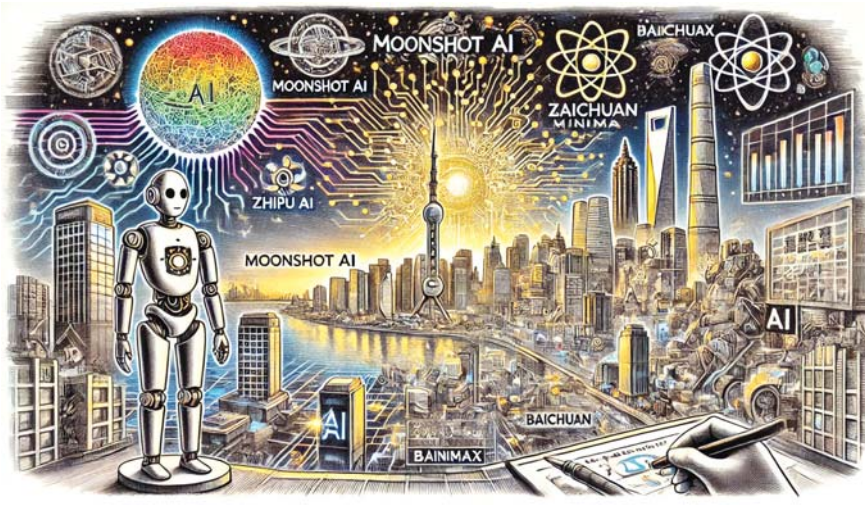
딥시크 데이터 유출 정황 논란
韓, 서비스 중단'...美, 금지 고려
통이완상, 이미지 무단 학습 의혹
어니-빌지, 中 정보통제로 검열

‘신(新)AI 4대 천왕’을 필두로 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의 혁신이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은 연일 세계적 수준의 AI 모델들을 쏟아내며, 글로벌 AI 시장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력한 존재감을 확보했다. 그러나 중국발(發) AI는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 인식 부족, 정부의 강력한 정보 통제, 스타트업이 직면한 기술적 한계 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은 중국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중국 AI 기업의 정점에는 1월 등장해 ‘스푸트니크 쇼크’로 평가 받았던 딥시크(Deepseek)가 있다. 딥시크의 AI 모델 ‘딥시크 R1’은 6700억개의 매개변수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중국 AI 모델들의 압도적인 성능 이미지.

를 갖춘 대규모언어모델(LLM)로 오픈 AI의 ‘GPT-4o’에 준하는 성능을 가졌으나 개발에 든 비용은 18분의 1에 불과해 알고리즘 최적화의 중요성을 전세계에 떨쳤다. 딥시크의 기업가치는 최소 10억 달러(1조4500억원)에서 최대 1500억 달러(217조8500억원)에 달한다.

딥시크를 이은 중국의 ‘신AI 4대 천왕’은 수십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기록한 중국의 주요 AI 스타트업 4곳을 말

하는데, ▲문샷AI(33억달러) ▲즈푸AI(28억달러) ▲바이훤(28억달러) ▲미니맥스(25억달러)가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알리바바의 ‘Q1 2.5-맥스’,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1.5프로’ 등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은 AI 모델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중국계 기업들의 AI는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정보통제 문제 등 여러 한계를 노출하며 ‘정부 리스크’를 드

러내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외신은 백악관이 국가 안보를 우려해 정부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딥시크가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점, 수집된 데이터 활용 방식 및 접근 권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연방정부 기기에서의 딥시크 앱 사용 금지를 고려 중이다.

우리 정부도 딥시크 앱의 국내 신규 서비스를 지난달 15일부터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유출 정황을 이유로 국내 서비스를 중단시켰고,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비롯한 국내 모든 앱 마켓은 딥시크를 퇴출시켰다.

‘통이완상’ 등 생성형 AI 모델들도 전세계적 논란거리인 학습 데이터 세트의 저작권 논란에 직면했다. 통이완상은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개발한 AI 이미지 생성 모델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통이완상은 모델 훈련을

위한 학습 과정에서 알리바바 등 주요 자체 플랫폼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중국 법원이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인간의 지적 투입과 창의성을 반영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창작물 논란까지 직면했다.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 또한 중국 AI 모델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바이두가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어니-빌지(ERNIE-VILG)’는 중국 문화에 관해 특화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는 모조리 검열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이를 해외에서 이용할 때도 적용하고 있다. 딥시크 또한 관련 문제를 안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중국 AI 모델들의 성장 속도는 충격적”이라며 “중국 정부의 인제 육성부터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폭적 지원 아래에서 성장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T,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4명 재선임 논의

오는 31일 주주총회 개최 예정
연간 재무제표 승인 안건 등 상정

KT가 오는 31일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 4명의 재선임을 논의할 예정이다.

KT는 10일 주주총회 상정 안건 공시를 통해 현직 사외이사인 곽우영·김성철·이승훈·김용현 후보자의 재선임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김성철·이승훈·김용현 후보자는 감사위원으로도 추천되었다.

곽우영 후보자는 LG전자와 현대자동차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네트워크 장비 및 커넥티드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ICT 전문가다. 2023년 6월부터 KT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KT의 AIC

T 기업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사전에 조치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김성철 후보자는 ICT 산업의 리스크 및 규제 전문가로, 통신 사업 전략, 정부 규제, 산업 변화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는 국내외 정부 및 업계에 ICT 비즈니스 생태계 변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통찰력을 발휘해왔다.

이승훈 후보자는 UBS 및 JP모건 한국 리서치센터장을 역임하며, 아시아머니가 선정한 한국 주식시장의 최고 애널리스트로 평가받은 금융 전문가다. 2023년 6월 말부터 KT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KT의 투자 타당성 분석과 재무 관점에서의 사업 포트폴

리오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용현 후보자는 대전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다. 2022년 3월부터 KT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에 기여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주주총회는 31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간 재무제표 승인 ▲분기배당 배당 기준일 변경 및 회사채 발행 의결 방식 변경을 포함한 정관 개정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용인세브란스병원서 PASS 앱 사용해요”

통신3사,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도입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에 간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는 PASS 앱을 통한 신분확인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병원 담당자는 육안으로 환자의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접수·진료·수납 시 PASS 앱에서 신분 확인 QR코드를 생성 후 키오스크에 스캔하면 즉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병원에 전달된다.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 위젯을 휴대전화 홈화면에 미리 설치하고, 위젯



모델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간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및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KT

을 클릭해 PASS 신분확인 QR코드 화면을 바로 띄워 간편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국내 병원에서 본인인증을 할 때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 QR 스캔 방식을 적용한 건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처음이다. QR 스캔 방식은 개인정보 수거 입력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병원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김서현 기자

홍범식 “구성원 성장에 기여한 CEO로 기억되고 싶어”

(LG U+ 사장)

취임 100일 맞아 첫 ‘타운홀미팅’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구성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홍범식 사장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취임 100일 소감과 함께 본인이 지향하는 밝은 세상의 정의와 실천 방법을 공유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별도의 사회자나 대본 없이 홍 사장이 직접 90분간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홍 사장은 “회사나 개인이 성장하려면 동기, 역량, 계기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LG유플러스 구성원들은 이미 성공을 향한 열망(동기)과 이를 실현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가운데)이 10일 LG유플러스의 서울 용산사옥에서 타운홀미팅을 가진 뒤 임직원들과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이어 “잠재력을 폭발시키려면 계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만드는 것이 CEO인 제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고객들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맞춰 기준을 높이고, 그 이상의 감동을 창출할 수 있는 부

분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성원들에게는 단순히 1등하는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이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홍 사장은 “밝은 세상”을 ▲(나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다른)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차별적 경험을 선사하며 ▲(바른) 고객과 파트너에게 참여와 공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홍 사장은 CEO로서의 새로운 꿈도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홍 사장은 “구성원들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하는데 기여한 CEO로 기억되고 싶다”며 “LG유플러스 직원이라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삼성SDS-카이스트 ‘에이머’, KpqC 선정

(한국형 양자내성암호)

국내외 기준에 맞게 표준화 추진

삼성SDS는 카이스트(KAIST)와 개발한 ‘에이머(AIMer)’ 알고리즘이 한국형 양자내성암호(KpqC) 국가 공모전에서 최종 알고리즘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양자내성암호(PQC)란 양자컴퓨터가 기존 암호화 체계의 보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용자 데이터를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로, 이번 공모전은 양자컴퓨터 시대에 대비한 한국형 양자내성암호를 확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삼성SDS는 암호 알고리즘 설계와 구현을 맡았으며, KAIST는 안전성 분석을 담당했다. 에이머는 소인수분해와 같은 수학적 난제 기반이 아닌 자체 개발한 일방향 함수 기반의 암호 알고리즘이다. 일방향 함수 방식은 한번 암호화하면 다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해 양자컴퓨팅 환경에서 수학적 난제 방식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졌다.

선정된 알고리즘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범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 마스터 플랜에 따라 국내외 기준에 맞게 표준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0@